

社說

내면적 비판 선행돼야
—선거에 즈음하여—

1987년도 12월로 접어들었다. 한해의 산마루에서 서서 되돌아 볼 때, 지나온 여정과 험난한 길이 악몽과 같이 여겨진다. 이제 저를 가는 해를 바라보며 우리는 밝은 새 아침의 새 해를 기다리고 있다. 과거와 미래의 분수령에서,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의 길이 우리를 자유와 평등과 사랑을 기약하는 평화로운 땅으로 인도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다.

그러나 바람과 기다림만으로 미래의 밝은 길은 열려 있지 않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나온 길에서 겪었던 고통과 치욕의 회상이 다시 혼란과 방황 속에서 잊혀지거나 무화되어서도 안된다. 그것들은 현재에 대한 우리들의 새로운 자각과 통찰에 의해 아름다운 결실로 상수되어야 한다. 지금 숙련한 성찰과 사색은 통찰이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위험한 벼랑과 어두운 골짜기의 길에서 방황하게 될 지도 모른다. 밖으로, 현실로만 한눈을 뜨면 우리의 현실을 다시 우리의 내부로 돌려 우리의 내면적 자세와 행동방향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그럼에도 우리는 먼저 현실에 대해 철저한 자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현실에 대해 비판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이 비판의 자세가 언제나 정당 하려면 자신에 대한 비판의 자세가 먼저 정제 되어야 한다.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 없이는 비판이란 행위를 할 수 없다. 비판이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비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비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비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비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비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베르그송의 말처럼 생각하며 행동하고, 행동하며 생각하는 절제되고 절제한 사람들이 필요한 때이다. 행동과 비판에 앞서 자신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있기에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본분을 잊거나, 자신의 능력과 책임을 망각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타인과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지, 그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났는지, 자신이 그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자신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일을 하도록 그 지위를 맡긴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획득한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의 다수가 되고, 이러한 사람이 그러한 다수에 의해 국가나 학교, 모든 사회단체의 지도자로 선출될 때 우리사회는 안정되고 밝은 미래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제 민주화된 국가, 민주화된 사회, 민주화된 학교로 나아가는 이 분수령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실전없는 이론도 공허하지만 이론없는 실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허한 현실참여와 공허한 사회비판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학문적·이론적 배경을 충실히 다져야 할 것이다.



바리새 사람들이 예수 앞에 간음한 여자를 끌고 온 것은 그를 공적으로 몰아내기 위함이었다. 예수가 간음한 여자를 돌려 쳐 버리고 말하면 그의 사람의 가르침은 유대교의 율법과 다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자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면 그의 가르침이 사회적 무질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판정을 내리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는 그의 사람의 도래는 논리적인 도전을 드러내게 되리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예수의 계산은 그들의 앞을 폐쇄시키려 부끄럽게 만들었다. <너희들중 죄없는 자, 이여자를 돌로 쳐라>

예수의 이 한 마디 말로써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의 의미가 형식주의적인 정법의 차원과 어떻게 다른지를 가늠하게 되는데, 이것은 2000년 후의 문명을 열어놓는 반대의 第一命題는 진정한 민

1. 녹색혁명의 의의와 내용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이라고 하는 용어는 1962년 F.A.O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즉 녹색혁명이란 우수한 농작물을 개발·보급하여 식량난 해결의 전환기를 가져오려는 종중개량상의 혁명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농업인구의 과잉, 경작지 개발의 한계성에 부딪힌 농산물증산을 위한 불과같은 모험이라고 한 범세계적 운동이며, 필리핀 로스바노 작에 있는 국제농작물연구소가 수확량이 월등히 많은 소위 기적의 벼(miracle rice)라고 하는 IR 8을 개발하면서 연유하는 말이다.

1969년 Lester R. Brown은 「녹색혁명, 1970년대의 전망」이라는 책을 썼으며, 그 서론에서 식량과 인구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20세기 후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인류문제의 중의 하나이며,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핵전쟁을 피하는 것인데 무기개발 기술과 무력경쟁은 실제로 핵전쟁의 위험성을 격화시켰으나 농업의 기술혁명은 식량과 인구문제를 보다 잘 관리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세계적으로 있어서의 식량증산은 일반적으로 예측되어온 기근과 기아의 실상을 점차 없애주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였다. 식량전쟁의 열풍으로서는 새로 개발된 다수성 벼, 밀, 보리 등의 종자와 이들 종자를 육성한 과학자를 들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들 새로 개발된 종자는 인도, 터키, 필리핀, 기타 동남아시아 각국과 케냐 또는 멕시코와 같은 저개발국에 있어서 농업혁명을 가속화시켜 주고 있다고 하였다.

세계적으로 영구적인 인류의 평화는 사회정의에 바탕을 두었을 때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인 것이며, 따라서 인류의 평화를 바란다면 정의의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모든 인간을 위한 충분한 식량이라고 한다.

즉 식량없이 인간은 고작해야 몇 주밖에 살지 못하며 식량 없는 사회정의의 실현은 모든 다른 요소들은 무의미한

賢問愚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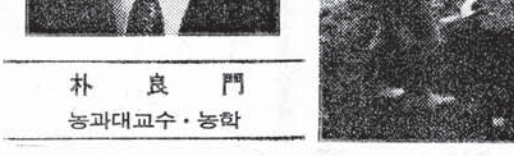
정치자태의 행위를 우리는 요즘의 선거정국에서 읽는다. 예수의 한 마디 답변은 우배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침묵케 하는 힘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 당선된 국민들의 피땀의 희생의 의미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것같은 우리의 답답한 대통령 후보자들의 행태를 듣고 있으면 안타깝

고 원소스럽기만 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막연한 선거열기에 들떠있기 보다는 이번 선거의 역사적인 의의를 엄숙하게 되새겨 보자. 우리 국민들이 민주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정말이지 국민소속대나 아닌 특정인들의 배후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은 아니었지 않은가. 소독의 증대보다는 소독의 공정한 분배를 당면과제로 안고 있는 우리의 第一命題는 진정한 민

너희들중 죄없는 자, 이여자를 돌로 쳐라

서는 語不虛設이라고 보고 싶다. 만약에 부도덕한 정치경력의 소유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그 때 그것은 이 땅에 부도덕한 정치행태를 용인하는 결과로 되고, 나아가서 미래의 한국 정치사이에 非難의 정치지망생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해 내는 악순환을 빚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5년간 이 나라의 모든 학교와 관청에 걸려있는 대국민 열거에서 우리 국민들을 내려다 보게 될 대통령의



朴 良 門
서울대학교 교수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2. 녹색혁명의 역군

이 세상의 식량전쟁을 해결하려는 역군은 농업과학자 또는 녹색혁명을 이룩하려고 노력하는 농학자, 그리고 농업생산에 힘쓰고 있는 농민이다. 이들 역군의 국제적 무대는 국제농업연구기구(IAIR)와 농업의 무대는 농장이다.

국제농학수·밀연구센터(CI-MMYT)와 국제농작물연구소(IRRI)는 유방한 국제농업연구기관이며, 그 외에 남미의 콜롬비아에 중앙국제농업연구소(CIAT)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국제농작물연구소(CIITA) 대만에 아시아작물연구개발센터(AVRDC) 등의 국제연구소가 있다.

(1) 국제농학수·밀연구센터(CI-MMYT)와 그 주요업적 이 연구소는 1944년경 젊은 미국인 4명의 미국의 농업혁명을 멕시코에 옮겨와서 시도를 한 것으로 그들은 산업과학의 응용이 가난한 나라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들은 젊은 농업혁명가들은 멕시코 정부에 의하여 초대되고, 특별 러財團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지도자는 식물병리

학자인 George Harrar 박사였으며, 그는 후일 특별러財團의 회장이 되었다. 멕시코의 옥수수, 밀, 감자에 대한 연구 활동은 1959년에 시작되었으며 1963년에 비로소 정식 국제농학수·밀연구센터로 조직되었다. 즉 이 연구소는 멕시코 정부의 협력하여 미국의 특별러와 포드財團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

1950년경만해도 멕시코는 식량부족으로 허덕였으며 미국으로부터 다량의 양곡을 수입하고 있었으며 1967년에는 밀 생산이 종전의 3배로 증대되었으며, 옥수수의 생산도 2배로 증대되었다. 또한 멕시코 사람들은 종전보다 식량을 평균 40% 이상을 소비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농업혁명을 이룩한 주역은 G. Harrar의 연구결과 그 후계자들이다. 특히 밀연구연구소의 연구원 Norman E. Borlaug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개발된 다수성 품종인 소위 '기적의 벼' (IR 8, 62, 62) 등의 출현에 있었던 것이다. Borlaug은 그것이 녹색혁명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어 1970년에 영예의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2) 국제농작물연구소 (IRRI) 이 연구소는 필리핀의 로스바노에 소재하며, 이것이 최초의 국제적 연구원 훈련기구가 설립되었는데 미국의 특별러와 포드財團에 의한 공동의 재정지원과 필리핀 정부의 협력에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는 동남아시아水稻作에 대한 연구와 이 지역의 저개발국 농업개발기술훈련의 훈련을 병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연구소의 연구원은 Robert Chandler (전 미국 New Hampshire大學 總長) 지휘하에 여러나라 농업과학자들이 연구사업에 종사하였다. 그들은 1966년에 드디어 'IR 8'이라고 하는 소위 '기적의 벼' (miracle rice)를 개발하였다. IR 8의 육성 결과와 품종의 육성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 연구결과에 대한 이론적 육성의 기초적 설계는 멕시코 밀의 경우와 같다. 열대지방에서의水稻의 재배는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절하는 일이 별로 없는 상태로 자연의 일관적인 생물환경에서 자연선택 결과 그들 재래품종들은 생존을 위하여 雜草, 降雨 또는 洪水의 공격을 해안하고 있었 것이다. 그래서 홍수시에는

얼굴은 이 나라 최대의 도덕과 과서 역할을 하게 될 터인데, 부도덕한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 때 그것은 이 땅에 부도덕한 정치행태를 용인하는 결과로 되고, 나아가서 미래의 한국 정치사이에 非難의 정치지망생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해 내는 악순환을 빚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5년간 이 나라의 모든 학교와 관청에 걸려있는 대국민 열거에서 우리 국민들을 내려다 보게 될 대통령의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다.

消大漫評



제일굴에 침발기

동계 방학

아르바이트생 모집

남·여 대학생 학과, 학년, 전공과목 관계없음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까운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구가 낡은 가장 위대한 천재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하길 "인간은 태어나서 자기 잠재력의 18%도 활용하지 못하고 죽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감추어진 이 무한한 보물을 우리들은 그냥 사장(死傷)시키고만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유아교육에 200년의 뿌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굴지의 회사로서 서독, 영국, 일본 등 세계 26개국과 자로교한·협약에 의해 교육자로서 생산·보급·수출 전문업체이며, ●금번 동계방학을 맞이하여 학생들 신분으로서 사회경험, 여가선용, 학비마련, 자기 자신의 잠재력 개발을 위해서 의욕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감이 강하고, 매사에 활동적인 남·여 대학생에게 일 자리를 드립니다.

특	전
①매일 11시 출근 4시간 근무(공휴일은 휴무, 매일 자유시간 허용)	
②기본급(151,000원) + 노력의 댓가 별도 추가 지급 (월보수 최저 30만원 이상)	
③정규교육 및 실무지도(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당사 부담)	
④우수근무자는 방학이 끝난 후에도 계속 근무 가능함	

인원및자격	남·여 00명, 재학중인 초·대생(학과, 학년, 전공과목 관계없음)
구비서류	이력서 1통(이력서 상단에 연락처와 번호 필히 기재, 사진 부착)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교육(1차 합격자 개별통지 12월19일)
접수마감	1987년 12월 18일(당일 소인 유효)

※보낼곳 : 제주시 제주우체국 사서함 106호

KOREA FROEBEL CO LTD

공 고

1987년도 본 대학교 직장예비군 보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기 간 87년 12월 23일~12월 24일(2일간)
2. 교육일정

일 시	교육 내용	장 소
12/23 (수)	정 신 교 육	사회과학대학 중강당
12/24 (목)	사격 및 체육	92대대연병장

3. 유의사항

가) 87년 12월 23일(수요일)에는 보충교육 대상자 전원이 08시까지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 집결완료 한다.

나) 87년 12월 24일(목요일)에는 해당자 전원이 07시 45분까지 92대대 연병장에 집결완료 한다.

다) 중식 : 개인지참

라) 복장 ①사복착용(출, 퇴근시) ②교육훈련복 착용 ③본인확인 신분증 소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예비군대대(구 내 296번, 297번)으로 문의할 것.

1987년 12월 일

제 주 대 학 교
직장예비군대대장

공 고

1987년도 본 대학교 직장예비군 보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기 간 87년 12월 23일~12월 24일(2일간)
2. 교육일정

일 시	교육 내용	장 소
12/23 (수)	정 신 교 육	사회과학대학 중강당
12/24 (목)	사격 및 체육	92대대연병장

3. 유의사항

가) 87년 12월 23일(수요일)에는 보충교육 대상자 전원이 08시까지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 집결완료 한다.

나) 87년 12월 24일(목요일)에는 해당자 전원이 07시 45분까지 92대대 연병장에 집결완료 한다.

다) 중식 : 개인지참

라) 복장 ①사복착용(출, 퇴근시) ②교육훈련복 착용 ③본인확인 신분증 소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예비군대대(구 내 296번, 297번)으로 문의할 것.

1987년 12월 일

제 주 대 학 교
직장예비군대대장

공 고

1987년도 본 대학교 직장예비군 보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

1. 기 간 87년 12월 23일~12월 24일(2일간)
2. 교육일정

일 시	교육 내용	장 소
12/23 (수)	정 신 교 육	사회과학대학 중강당
12/24 (목)	사격 및 체육	92대대연병장

3. 유의사항

가) 87년 12월 23일(수요일)에는 보충교육 대상자 전원이 08시까지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 집결완료 한다.

나) 87년 12월 24일(목요일)에는 해당자 전원이 07시 45분까지 92대대 연병장에 집결완료 한다.

다) 중식 : 개인지참

라) 복장 ①사복착용(출, 퇴근시) ②교육훈련복 착용 ③본인확인 신분증 소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예비군대대(구 내 296번, 297번)으로 문의할 것.

1987년 12월 일

제 주 대 학 교
직장예비군대대장

공 고

공 고

인터뷰



■梁宇鎮 신임 인문대학장

탐구분위기는 발전의 원동력
외국어교육센터 활성화 할터

육관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는 장학장은 대학발전의 원동력은 곧 교수 학생들의 탐구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생김을 강조한다.

이제 앞으로 인문대학의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인문대학은 학문의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곳이지만 우선 외국어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키기 위한 비다모임 열화상설과 각종 국제학술세미나에 대비한 5개국어 동시통역시설을 두루 갖춘 외국어교육센터를 설치해 제대인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임기중의 역설 사업임을 밝히는 한편,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외부통근기업

이나, 중앙기업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학생들의 취업에 힘쓰며, 외국어교육센터 활성화를 통해 빠른 취업정보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대학이란 공동체는 사회가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상아탑이 되어야 하지만 오늘날 대학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음을 역설하는 장학장은 또한 대학이 현실참여란 문제에 대해 「대학은 전산에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밀바탕으로 해서 사회의 제반현상의 원리·규칙을 연구하는 것이다. 즉, 학문자체는 현실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지만 이에 거부반응을 일으킬 필

요는 없고 문제를 어떤방향으로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인 것으로 본다」고 현실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를 위해 해선 학생과 교수간의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합심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학생들은 성실한 태도로 일생에서 헌신하여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생활에 충실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잊지않는 장학장의 모습에서 어려운 시기에 본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참된 인격형성을 위한 교육에 힘쓰리라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었다. 【振】

■梁重海 신임 사범대학장

『초대 사범대학장을 맡은 적도 있는데, 재임하게 되어, 정말 잘해 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교사발령제 문제 해결해 달라는 학생들에게, 학장실 점거로 사무원에게 안되어 있고, 기타 여러가지 학장으로서의 사무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취임 인터뷰냐』고 梁重海(국교·국문과) 신임 사범대학장은 연구실을 노크한 기자에게

가져야만 사범대 졸업생과 학원생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梁重海는, 사범대 기본 운영방식에 대해 「현재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학생들에게, 학장실 점거로 사무원에게 안되어 있고, 기타 여러가지 학장으로서의 사무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취임 인터뷰냐』고 梁重海(국교·국문과) 신임 사범대학장은 연구실을 노크한 기자에게



교는, 사대졸업생은 타지역과 같은 수로 배정되고 지역은 협소한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반성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교수와 학교장간의 노력이 부족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지 못한 여건속에서 학장으로서 또한 학교장으로서 실질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 하려 합니다」라고 梁重海는 해소를 위한 사범대학장으로 서의 굳은 의지를 보였다.

梁重海는 「학원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대대적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대학은 교수·학생 모두에게 성의가 있어야 이루어집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대생들에게 준 교사로써 학원생과 학생간의 교섭으로서 학원생과 학생간의 현실비판을 위해 「독서」를 강조하는 梁重海는 57년 본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61년부터 본교 강단에 서기 시작하여 교육부장관,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장, 박물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振】

발령적체, 정책적 모순의 산물
도교위와 연계로 해소할 방침

계 반문한다.

『사범대는 국가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므로 여기 출신자들은 일선사회에서 곧 직장을

梁重海는 심각한 체증현상으로 현재 사대문제까지 되고 있는 사대졸업생들의 발령적체 현상을 「문교부 정책이 있어서 교사사급제이기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발령제 자체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교원대학을 설립한 것 등이 그 단적인 예」라고 문교정책을 비판한다. 또한 「본

『정책적 변화에 과도기적 학생체제를 맞게 되어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전임처장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趙南模(농대교수·농학) 신임 학생처장은 첫눈이 오는 오전, 사무실을 노크한 기자의 방문에 학생처장을 맡게된 소감을 이렇게 전한다.

신임학생처장은 또한 「우리 대학이 종합대학교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의 근원적 기능인 학원생들의 본위구조와 교수학들의 장학금지급확대 및 일반학생에게 직접 피해가 오는 후생복지시설 확충과 졸업생의 취업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며 앞으로의 학생처의 활동방향을 여기에 주안점을 뒀는데다 방침이라고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교수학들의 평등해있는 불신감을 조정, 신뢰와 공감대



소감을 학교당국과 학생간의 대화부족이 표면화 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일찍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에 학생·교수·학교당국이 모두 전진했더라면 학사일정이야 학내분위기조성이 더욱더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라고 아쉬움을 표한다.

또한 학생지도 방안에 대한

전날에 있었던 총학생회장선 거개표결과를 지켜보느라 밤샘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부스스하다며 「학생들이 본인의 자에서 벗어나지 말고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었으면 하고, 그리고 학생처의 이미지를 전제대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와 의논할 수 있는

복지시설 확충, 취업기회 확대
민주적 방법으로 권리행사하길

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발전의 전반기에 있는 우리대학에서 제1 학교발전기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피력해 본다.

이와 관련하여 그간 있어왔던 일련의 학내사태에 대해 중재교수 한사람으로서 느꼈던

질문에 趙南模는,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선배로서 여러학생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든 누구나 부담없이 교수학들의 연구실을 노크할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간의 거리감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선배로서의 격려있는 다짐을 나타낸다.

보다 학생들을 위한 학생처로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라고 본교의 선배로서 또한 교수로서의 당부의 말도 잊지 않는다.

63년 본교 학생들을 졸업하여 66년부터 본교강단에 서기 시작한 趙南模는 그동안 학생생활연구부장·농장장 등을 역임해 있다. 【振】

■趙南模 신임 학생처장

事象을 보는 시각의 조건

허정훈 (사대정경철학)

2500여년전 신화의 시대를 벗어나 인간 정신의 합리적인 지적 인식 능력을 가하기 시작한 이래로, 두란트의 표현에 따르면, 인간은 작은 것을 작게, 큰 것을 크게 알고자 하였다. 즉 영원한 진리의 빛 속에서 보여질 사상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자 하였다. 그러한 진리는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지는 않아도, 자유롭게 해주지는 않으며, 지혜를 우리에게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는 작은 것을 크게, 큰 것을 작게 만드는 왜곡과 논리의 망령이 횡행하고 있는 시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는 왜곡과 논리의 왜곡을 조장해 버리는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도전을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를 도모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도전과 승리에 도달하는 길은 그리 평탄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길 도처에는 수많은 위험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한 함정 중의 하나가 인간 정신의 유한성과 한계에 대한 망각이다. 우리는 사상의 참된 모습을 비추 볼 수 있는 영원한 진리의 빛

을 구한다. 사상의 전체적 모습 속에서 그간의 존재이유와 존재 목적 및 의의를 알고자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은 보장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오직 사상의 부분적인 이해에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지혜에 대한 탐구로서 철학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던 피타고라스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혜 자체가 오직 신에게만 속하고 인간 정신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최고의 진리는 너무나 숭고하여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정신은 여러 측면에서 제약되어 있으므로 그런 최고의 진리를 정당하게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자신이 현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을 원치 않고 단순히 지혜의 빛 또는 지혜의 연인으로 불리워지기를 원했다.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유한성과 한계 때문에 지혜를 오직 불완전하게만 소유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지혜를 소유하는 자라기 보다 지혜의 문 앞에서 구경하는 자라 하고 할 수 있다. 인간 정신의 이성적 노력에 의해 인간에게 허용되는 지혜는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지혜이며, 그것은 어떻게 얻어지더라도 불완전한 것이다. 인간의 지혜는 인간 정신의 한계 내에서의 지혜이다. 그러므로 인간 정신의 유한



이었다. 인식 대상이 아니라, 인식하는 주관의 이익이 인식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지혜는 능수능란하게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고는 논박하는 논쟁술에 불과했다. 과거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식의 참된 목적을 망각하고 지식의 자만에 안주하는, 더 나아가 한 사상의 다양한 부분적 이해를 중시하는 자의식과 일치하는 것만을 내세우는 소

니라, 사람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주는 것이었다. 소피스트의 덕은 이런 확신을 주는 기술이며,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혼을 지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플라톤의 지적처럼, 영혼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그들의 지적 활동의 유일한 목적은 영원한 빛 속에서 사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인식 대상이 아니라, 인식하는 주관의 이익이 인식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지혜는 능수능란하게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고는 논박하는 논쟁술에 불과했다. 과거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식의 참된 목적을 망각하고 지식의 자만에 안주하는, 더 나아가 한 사상의 다양한 부분적 이해를 중시하는 자의식과 일치하는 것만을 내세우는 소

사상의 다양성 容認, 熟考 여유 가져야

성과 한계를 망각할 경우, 사상의 전체적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는 욕망은 흔히 궁극적 근거를 발견하고자 하면서도, 전체를 그 부분들 중의 어느 하나로 환원시키거나 어느 하나에 의해 설명해내려는 충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를 부분들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사상을 전체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상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한 부분에 얽매고 나면, 아무도 사상의 전체를 보지 않게 되고, 그것은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동전은 원형이라는 기하학적 모습만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것은 작사 각형의 모습도, 타원형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성을 무시하고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동전의 절대적인 모습이

피스트의 논쟁적인 지적 태도는 인간 정신의 변칙적인 태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 정신의 유한성과 한계에 대한 망각과 더불어 사상의 다양성에 대한 무지 또는 남용이 인간 지혜에 대한 포박의 함정임이 드러난다. 사상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해도 인간에게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동전은 원형이라는 기하학적 모습만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것은 작사 각형의 모습도, 타원형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성을 무시하고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동전의 절대적인 모습이

원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중요하다. 비판적 태도는 단순한 부정이나 거부가 아니라, 원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를 검토하고, 그런 비판의 결과로서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경우에만 인정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어떠한 반대에 있든, 사상은 원리나 신념은, 바로 그 이유로 해서 항상 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에게 그런 권리는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오류를 범하는 존재임을, 피할 수 없는 오류를 줄여가는 일이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이 있는 불가능한 일임을 자각해야 한다.

원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중요하다. 비판적 태도는 단순한 부정이나 거부가 아니라, 원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를 검토하고, 그런 비판의 결과로서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경우에만 인정하는 태도이다. 그러나 어떠한 반대에 있든, 사상은 원리나 신념은, 바로 그 이유로 해서 항상 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에게 그런 권리는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오류를 범하는 존재임을, 피할 수 없는 오류를 줄여가는 일이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이 있는 불가능한 일임을 자각해야 한다.

대학원 논문 발표회 가져
교육대학원 11명 등 석사과정 총 32명

대학원 (원장:玄容駿교수) 및 교육대학원 (원장:金榮敦교수)에서는 「87학년도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개발표회」를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대학원 2층 세미나실에서 가졌다.

석사학위취득예정자 총 32명이 발표한 이번 청구논문발표회는 다음과 같다.

△대학원
△석사과정
△국문=「제주도 방언의 형태소 「시」에 관한 연구」(문순덕)의 1편
△농학=「칼슘 Carbide 처리에 의한 Pineapple 개화 유도에 관한 연구」(오세민)의 1편
△원예=「제주도 자생 말나리의 화해에 관한 연구」(김승현)의 2편
△수산=「제주도내 낙농 농가의 경영분석 (Business Analysis of Dairy Farming in Jeju Province)」(김창섭)의 1편

△농학=「제주도내 수도와 육도 근경중의 질소 고정 미생물의 분포」(황다리아)의 1편
△어업=「제주해협 및 제주도 서방 해역의 해수 유동에 관한 연구」(김상현)
△해양=「제주도 주변해역 동물 플랑크톤 생산량 추정과 군집구조에 관한 연구」(오봉철)의 2편
△생물=「제주도 초지대 및 해안식생연구」(강영재)의 2편
△식물=「과제주에 잔류성 농약의 토양변이 유발성에 관한 연구」(강영주)의 2편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교육행정=「教育財政運用의 效率化方案 研究」(고용성)
△국문=「장지용시론 연구」(이정일)의 1편
△영문=「The old man and the sea」에 나타난 stoicism and Human Love. (이영진)
△국문=「元龜思想의 實踐性에 관한 研究」(고정용)

원소 협의회)의장 초청세미나」가 방사능이용 연구소(소장:柳慶泰·농화과·부교수) 주최로 지난 11월 4320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과학의 기본사상을 이해시키고 학문의 능률화·교도화를 이룬다」는 취지로 교수·대학원생 및 학생들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박의장은 「과학의 반세기」라는 주제로 작품과 반작용을 과학의 양면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연하였다.

국립대 제천 참가 본교핸드볼팀 우승

지난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전주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제15회 국립대 제천에서 본교핸드볼팀이 우승한 것을 비롯, 축구부가 3위, 이태훈(체교·3) 군이 육상 1만에서 3위의 성적을 거뒀다.

한편 지난 19일 본교 윤희철(체교·4) 군과 핸드볼팀이 87제주도체육상 최우수선수상과 단체로 각각 선정됐고 이준환(체교·4) 군이 우수선수로 뽑혔다.

박의수의장 초청 세미나 방사능 연구 주제로 열려 「박의수(한국 방사선생물

본사는 12월 4일자 제325호 발행으로 이번기회를 종간합니다.

다음신문은 1월호에 발행, 독자여러분의 집으로 발송할 예정이니, 각학과 학년대표는 과학생들의 주소를 발송처지에 기재한후 본사로 접수해주시 바랍니다.

그동안 제대신문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참신하고 알찬내용의 신문물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생활속에 함께하는 정보통신

제2회 1,000만원고료 「정보사회」논문 및 사례모집

미래 정보사회를 조기에 앞당기고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관련산업계 및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확대되고 각계각층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속에 함께하는 정보통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보사회의 밝은 미래상에 대한 법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많은 글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제

■ 논문부문: 정보통신과 우리생활
정보사회에서 정보통신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변화 및 사회적 변화에 예측하는 내용 또는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글

■ 사례부문: 정보통신의 이용을 통하여 체험한 사례
현재 우리 나라의 생활환경에서 가전 또는 개인에 적용한 정보통신 기술 또는 서비스

■ 공모자격: 일반인, 대학생

■ 공모요령

1. 응모기간: 1988년 1월 25일(월) 한

2. 원고분류 및 내용

● 논문부문: 2,000자 원고지 80매 내의(사전도 포함)

● 사례부문: 2,000자 원고지 40매 내의(사전도 포함)

단, 각 부문 공히 5매 정도의 요약내용을 동시 제출

*요약내용은 여타의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아니한 창작물이어야 함.

*여타 저서 논문 등에서 인용한 경우 반드시 원천을 밝혀야 함. (원천은 논문 포함)

*입상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영구히 당사에 있으며,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3. 보낼 곳

140-00 서울 용산구 한강로37가5-228(대아빌딩)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 기획본부 종합기획부 원상공모담당자 앞

■ 시상내역				
구 분	논 문 부 문		사 례 부 문	
	편수	시 상 내 용	편수	시 상 내 용
최우수작	1편	상대 및 부상 300만원	1편	상대 및 부상 100만원
우 수 작	1 편	상대 및 부상 100만원	1편	상대 및 부상 80만원
가 격	2 편	상대 및 부상 50만원	2 편	상대 및 부상 40만원
장 령 상	5 편	상대 및 부상 30만원	5 편	상대 및 부상 20만원

■ 당선작 발표: 1988년 3월 15일(화) 대한경제신문에 게재

■ 기 타

● 언론, 학계, 문인, 관련 전문가 등에서 위촉된 심사위원들에 의해 심사됩니다.

● 응모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자제본하는 당사(796-6001/5, 2362-5)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후 원: 韓國經濟新聞社

